최초 여성 음악가들의 유학과 근대성의 발현: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장정윤
(추계예술대학교 외래교수)

1. 들어가며
2. 유학을 경험한 최초의 여성 음악인, 그들은 누구인가?
   1)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다
   2) 유학지 선택과 유학경험
3. 유학을 경험한 최초 여성 음악가들과 근대성의 발현
   1) 음악적 근대와 동경 그리고 현실
   2) 유학 이후 변화와 극복 그리고 한계
4. 나가며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1051387).

www.kci.go.kr

개 요

본 논문은 유학이 증가했던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유학을 경험했던 최초의 여성 음악가들을 밝히고 그들의 유학적 경험이 개인적 욕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을 거치고 근대성으로 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음악유학은 근대 초기 음악문화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음악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 차원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교육적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는데,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에게 음악은 그 자체로서 향유의 대상이자 배우고 익혀서 후대를 위해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를 계몽시켜야 한다는 사명과 의무가 전제된 것이었다.

초기 여성음악인들에게 유학은 배움의 환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인 욕망이 맞물린 상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모두 다른 과정 속에서 근대를 경험하고 체화했으며 유학을 통한 경험과 내적인 갈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찰은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유학과 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와 현실에서의 성찰을 통해 '자율성'을 획득한 초기 여성 음악가들은 스스로 체험한 '근대'에 대해 스스로의 삶에서 '근대성'을 발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근대성, 여성 음악가, 음악유학, 음악교육, 근대음악

www.kci.go.kr

1. 들어가며

유학(留學)은 배움의 연장과 경험의 확대라는 면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음악유학은 이 땅에 서구의 음악이 유입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음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고 후대에 전달되어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음악유학생의 역할은 우리의 음악문화 형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많은 음악 전공자들이 유학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서양음악교육과 문화의 초석이 된 최초 음악유학생들과 그들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1)]

1919년 3·1운동의 영향으로 높아진 교육열은 조선총독부의 개방정책과 맞물리면서 많은 유학생을 쏟아내었고 음악적 근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20~30년대에는 음악유학생의 수는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다. 당시에 음악은 대중음악, 전통음악, 서양음악 등 다양하게 분화되어 사회의 다방면에 흡수되었고 개인적 차원에서 향유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벗어나기 위한 민족 차원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교육적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종교영역에서는 기독교

1) 유학을 경험한 근대 초기 여성 음악가들에 대한 인물 연구는 전정임, “소프라노 윤심덕 연구,”『음악과 현실』40 (2010), 91-120., 손태룡, “추애경, 김태술, 권영화, 그들은 누구인가?,”『한국 서양음악가 연구』(서울: 보고사, 2011), 284-320., 김수자, “김애식의 음악 교육인으로서의 성장과 ‘기독교 가정’ 형성,”『이화사학연구』63 (2021), 227-255., 장정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音·樂·學』26/2 (2018), 7-67., “근대 여성음악가 김메리에 대한 기초연구-1950년대까지의 음악활동을 중심으로,”『한국예술연구』32 (2021), 295-318., “사료(史料)로 살펴본 윤성덕(尹聖德)의 삶과 음악활동,”『音·樂·學』29/1 (2021), 7-41., “한국 근대 여성 피아니스트 송경신(宋敬信, 1914-2010)에 대한 연구,”『이화음악논집』26/3 (2022), 69-100., “피아니스트 김원복(金元福)의 1950년 이전까지의 음악활동: ‘음악가족’을 중심으로,”『이화음악논집』27/1 (2023), 161-202가 있다. 그리고 초기 여성 음악유학생에 대한 관련 연구는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한국음악사학보』41 (2008), 149-186., 이경분, “베를린의 한국음악유학생 연구: 안병소와 이애내를 중심으로,”『음악논단』39 (2018), 41-77 등이 있다.

www.kci.go.kr

복음의 전파가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음악을 통한 교육이 필수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가정안팎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던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즉, 근대 교육에서 음악은 여성들의 영역이었고[2] 여성들에게 음악은 그 자체로서 향유의 대상이자 배우고 익혀서 후대를 위해 지식을 전달하고 사회를 계몽시켜야 한다는 사명과 의무가 전제된 것이었다.

근대 시기의 유학생은 전 분야에 걸쳐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이들이 들여온 학문이 역사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 여성음악인들에게도 유학은 배움의 환원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인 욕망이 맞물린 상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신문화와 지식을 접한 일부 음악유학생들은 귀국 후에 자신의 영역에서 선구자적이고 지도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며 가정에서 사회로 활동영역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의 서양음악문화 형성 과정의 초기 모습이자 본격적으로 유학이 증가했던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유학을 경험했던 최초의 여성음악가들을 밝히고 그들의 유학적 경험이 개인적 욕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을 거치고 근대성으로 발현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유학을 경험한 초기 여성음악가들에 대한 언급은 많은 문헌에서 발견되지만[3] 이는 그들의 삶이나 활동에서 있어 극히 일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언급은 이들이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가라는 원초적

2) 당시 남녀 학생들의 이수과목은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은 수신, 국어, 조선어 및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이과, 가사, 습자, 도화, 음악, 체조, 재봉 및 수예로 편성되어 있었다. 신남주, "1920년대 지식인 여성의 등장과 해외유학," 『여성과 역사』 3 (2005), 8.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에 해당되고 조선어와 한문을 하나의 과목으로 보고 있다.

3) 여성음악인들은 이화의 전문적인 음악교육에 공헌한 김애식, 일본에서 음반취입을 했으나 현해탄에 몸을 던졌던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 소프라노이자 〈금주가〉를 작사·작곡한 임배세와 〈학교종〉을 작곡한 김메리, 음악교육자로 알려져 있는 이은라, 김영의, 윤성덕, 연주자로 활동한 이애내, 정훈모, 채선엽 등이 언급되는 대표적 인물들이라 볼 수 있다.

www.kci.go.kr

인 질문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파편적으로 발견되는 초기 여성 음악가들의 활동을 불충분하게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인물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발굴을 바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들을 하나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역사를 다각도에서 보다 다채롭게 읽어낼 수 있는 새로운 관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4]

본 논문에서 언급하게 되는 최초여성 음악가들도 역사 속의 수많은 인물들 중 일부이다. 전체의 지형도를 그리기에 미비하고 앞으로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당면하게 되는 과제를 감당해야겠지만 본 연구를 위해서 필자는 몇몇 인물들에 발굴 및 확인 작업을 시작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미비하나 일단 이들을 한데 모아보는 일을 시작으로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안되어야 할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힌다.

2. 유학을 경험한 최초의 여성음악인, 그들은 누구인가?

1)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다

먼저 초기 여성음악가들은 본명, 학적서류에서 발견되는 이름, 결혼이나 유학, 이후 거주지 등으로 인해 사료에서 나타나는 이름 등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정리해보았다.[5] 이는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탈자로 인해 인물자체의 활동 내용이 바뀌거나 혼동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

4) 필자는 2022년 12월 17일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열린 한국음악학학회와 이화음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정기학술대회 "음악교육과 젠더정치: 식민지 근대 여성들은 왜 서양음악을 열망했을까?"에서 "피아니스트 송경신, 그리고 근대 여성음악가 연구의 다양한 이슈들"이라는 제목으로 송경신에 대한 최초의 연구 발표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물발굴과 연구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다각도의 음악역사연구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5) 결혼 이후 'Mrs.'(부인)로 표현되는 이름은 생략했으며, 본 논문 [표 3]에 배우자 이름을 정리해두었다.

www.kci.go.kr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에 따르면, 유학을 경험한 초기 여성음악가들은 미션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근대시기 서양음악의 유입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양악계의 발전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근대식 교육기관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영향은 평양, 개성, 경성, 대구 등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에서 나타났다.[6]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여성음악가들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표 1] 1920~30년대에 유학을 경험한 주요 여성음악인

이름(생몰연도) 그 외 문헌상 이름	출생지	수학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관련 선교사[7]	유학기간[8] 유학지: 교육기관
김애식(1890~1950) 金愛湜, 김앨리스 김애리시(金愛理思) 김애리시(金愛理施) Alice Kim 정애식, 정앨리스	제물포	인천영화학교 이화학당	Grace Harmon Margaret Bengel Lulu E. Frey Mrs. F. E. Boots Miss Catherine Baker Miss L. T. Dameron	1917~1923 (약 6년) 일본: 갓스이여학교(活水女学校) 미국: Ellison-White Conservatory
이은라(1888~1929) 李恩羅 Laura Supong Ye	미확인	이화학당	Mrs. F. E. Boots Miss Catherine Baker Miss L. T. Dameron	1920~1925 (약 5년) 일본: 갓스이여학교 미국: New England Conservatory Boston University
윤심덕(1897~1926) 尹心悳	평양	평양숭의여중 경성여고보	-	1915~1922 (약 7년) 일본: 도쿄아오야마학원(東京青山学院) 도쿄음악학교(갑종 사범과)

6)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미국 북감리교회와 남감리교회가 대부분이었으며, 원산, 함흥을 포함한 함경도일대는 캐나다 장로교회, 부산에서 거창까지의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회가 분담하고 있었다.

7) 사료에서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인물만 명시하였다.

8) 유학지에 머문 유학기간을 말하므로 실제로 학위과정에 따른 이수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www.kci.go.kr

이름(생몰연도) 그 외 문헌상 이름	출생	수학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관련 선교사	유학기간 유학지: 교육기관
임배세(1897~1999) 林乙仙, 임을선 Bessie Earlsun Lim Bessie Lim, 林培世 김배세, Bessie Kim	원주	이화학당	Grace Harmon Mary E. Young	1923~1928 (약 5년) 미국: Oberlin Conservatory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추애경(1900~1973) 秋愛敬, 김애경 Ai-kyung Chew Ruth Chew Ruth Chew Kim	대구	대구신명여고 이화학당	Homer A. Rodeheaver	1926 이전~1933 (6년 이상) 일본: 갓스이여학교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시애틀) New England Conservatory
윤성덕(1903~1968) 尹聖德, 차성덕 Mary Sungduk Youn Mary Youn Mary Sungduk Charr	평양	이화학당	Alice R. Appenzeller Mary E. Young Victor Wellington Peters	1926~1929 (약 3년) 미국: Kansas City Conservatory (Honer Music Institute), Oberlin College, Northwestern University
김메리(1906~2005) 金秩禮, 김메례, 김매리 Mary Chesik Kim, Mary Chesik Kim Joh Mary Chesik Kimm Joh	개성	이화여전 (영어)	Edna Marie Van Fleet William Carl Rufus Mary E. Young Agnes E. Graham	1930~1934 (약 4년 반) 미국: Pacific School of Religion, University of Michigan
고봉경(1906~납북)[9] 高鳳京 Pong Kyung Koh Gladys Koh	경성	경성여고보 이화여전 (피아노)	(이화여전의 선교사들)	1931~1933 (약 2년) 미국: Wesleyan College-Conservatory, University of Michigan (비등록)

9) Wesleyan College, "Commencement in 1952," *Wesleyan College Alumnae Magazine*, August, 1952. 기사에 따르면, 1928년에 웨슬리안 대학(Wesleyan College)을 졸업한 박인덕(朴仁德, 1897~1980)이 고봉경이 공산당에게 체포되어 사망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고봉경은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미국 웨슬리안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였으며 귀국 후 협성신학교 음악교수를 지냈고 경성자매원을 설립했다. 신문 기사 상 "언니 되는 고황경씨"라는 잘못된 표현 때문에 고봉경의 약력이 고황경의 약력이 섞여서 알려지기도 했다. "녀성사업가의 이모저모 몸을 바치는 아름다운 일꾼," 『동아일보』, 1940. 1. 6.

www.kci.go.kr

이름(생몰연도) 그 외 문헌상 이름	출생	수학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유학 관련 선교사	유학기간 유학지: 교육기관
김원복(1908~2002) 金元福, 洪元福 Won-pok Kim	신천	이화여고보	Mary E. Young	1926~1930 (약 4년) 일본: 도쿄고등음악학원[10]
김영의(1908~1986) 金永義 Youngyi Kim Young Yi Kim Sihn[11]	인천	인천영화학교 이화여전 (피아노)	Margaret Bengel Mary E. Young	1935~1939 / 1947~1948 (약 5년) 미국: Julliard School University of the Pacific (1960년 졸업)
이애내(1908~1996) 李愛內 Ainai Rie	하와이[12]	숙명여학교	-	1923 이후~1928 (약 5년)[13] 1934~1938 (약 4년) 일본: 고베여자학원 독일: Hochschule für Musik (베를린)
정훈모(1909~1978) 鄭勳模	평양[14]	평양여고보 이화여전	(이화여전의 선교사들)	1927~1931 (약 4년) 일본: 도쿄제국음악학교
채선엽(1911~1987) 蔡善葉	전남 벌교	이화여고보 이화여전 (피아노)	(이화여전의 선교사들)	1936~1938년 (약 2년)[15] 일본: 도쿄에서 벨트라멜리 요시코[16]를 사사
송경신(1914~2010) 宋敬信, 윤경신 Kyung-shyn Song Kyung-shyn Yoon	평양	평양 정의여고보	Dwight R. Malsbary Grave L. Rev. Dillingham	1931~1937 (약 6년)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시카고)

10) 도쿄고등음악학원은 현재 구니다치음악대학(国立音楽大学)의 전신이다.

11) 지금까지 김영의가 독신이었다고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기사에는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신성모가 "음악가 김영의 여사와 화촉의 성전을 간략하게 거행한 바 있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申性模氏 駐日代表를 任命," 『동아일보』, 1951. 7. 14. 실제로도 김영의가 1960년 졸업한 퍼시픽 대학교의 기록에서 발견되는 이름은 "Young Yi Kim Sihn"으로 나타난다.

12) 이애내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지성 목사의 딸로 태어났고 4세에 경성으로 왔다. 이경분, "베를린의 한국음악유학생 연구: 안병소와 이애내를 중심으로," 『음악논단』 39 (2018), 56.

13) 이경분의 논문 "베를린의 한국음악유학생 연구: 안병소와 이애내를 중심으로," 각주 52를 참조.

www.kci.go.kr

1920년대 초 음악유학생은, 일본 갓스이여학교(活水女学校)에서 수학한 이후에 각각 미국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와 보스턴 대학교에서 유학한 이은라(李恩羅, 1888~1929) 그리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앨리슨 화이트 음악학교(Ellison-White Conservatory of Music)를 졸업한 김애식(金愛湜, 1890~1950)으로 이들은 이화학당과 관련한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WFMS,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의 선발을 통해 유학을 지원 받았다. 이후 윤성덕(尹聖德, 1903~1968) 역시 이화와 선교사 메리 영(Mary E. Young)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미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 소속 클로틸다 리온 맥도웰(Clothilda Lyon McDowell, 1858~1930)이 기금을 마련한 맥도웰 장학금(McDowell Fellow)을 받아 1926년 미국 유학을 떠났는데 윤성덕이 최종적으로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쳤지만 유학 초기에 캔자스 시티 컨서바토리(Kansas City Conservatory)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한데에는 메리 영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김메리(金袂禮, 1906~2005)도 앨리스 R. 아펜젤러(Alice R. Appenzeller, 1885~1950)를 대신하여 이화의 교장대리를 맡고 있었던 애드나 마리 밴 플리트(Edna Marie Van Fleet)의 추천서와 메리 영의 서신으로 미시간 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수학할 수 있었다.[17]

이화출신의 여성음악인이 아니더라도 미국을 유학지로 선택한 경우는 선교

14) 부군 김형량이 황해도 안악 출신이라서 혼동해서 나타나기도 한데, 1932년 부부음악회에 관한 기사에서 "정훈모 여사는 평양출생 김형량씨는 안악출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성악의 정녀사와 제금의 김씨 악단에 경이의 데뷔," 『동아일보』, 1932. 11. 29.

15) 스스로 회고에서 1936년에서 1938년에 도쿄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채선엽, "나의 交遊錄 元老女流가 역는 回顧 〈101〉 蔡善葉①," 『동아일보』, 1981. 6. 1.

16) 벨트라멜리 요시코 파우스타(Beltramelli 吉子 Fausta, 1903~1973)는 본명 鐵能子, ベルトラメリ 能子라고도 불린다. 1922년에 이탈리아로 유학하여 나폴리와 로마에서 공부했으며 로마에 머무르던 중 이탈리아 시인 안토니오 벨트라멜리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1930년 사별하게 되어 1931년 일본으로 귀국해 독창회를 여는 등 활발하게 음악 활동했다.

17) 장정윤, "근대 여성음악가 김메리에 대한 기초연구-1950년대까지의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연구』 32 (2021), 302.

www.kci.go.kr

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다. 송경신(宋敬信, 1914~2010)은 조선총독부에서 인가한 사립학교이자 미션스쿨인 평양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곧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당시 평양은 엘리 모의리(Eli M. Mowry, 1880~1971)와 드와이트 말스베리(Dwight R. Malsbary, 1899~1977)와 같은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음악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곳이었다. 송경신의 유학과정을 보면 이화출신 여성음악가들처럼 유학 이후에 교육계에 투입되기 위한 이들의 미래가 유학 전부터 이미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추천서가 발견되지 않지만 송경신이 직접 작성한 미시간 대학교의 서류에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으로 선교사 말스베리와 평양정의여고보의 초대 교장이었던 여선교사 딜링햄(Miss Grave L. Rev. Dillingham, 1878~?)의 이름이 발견된다. 시기적으로 보면 송경신은 이들에게 음악을 배우고 유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는데[18] 유학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교사들은 송경신의 유학 생활에 일종의 보증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추천도 그렇거니와 위의 [표 1]에서 초기 여성음악가들이 유학 시 수학한 기관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기독교계 학교이다. 미국 웨슬리안(Wesleyan) 대학 계열이나 오벌린(Oberlin) 대학 계열 등과 마찬가지로 김애식과 이은라, 추애경(秋愛敬, 1900~1973)이 수학한 일본 나가사키에 위치한 갓스이여학교, 윤심덕(尹心悳, 1897~1926)이 일찍이 수학한 도쿄아오야마학원(東京青山学院)[19], 이애내(李愛內, 1908~1996)가 수학한 고

18) 장정윤, "한국 근대 여성 피아니스트 송경신(宋敬信, 1914-2010)에 대한 연구," 『이화음악논집』 26/3 (2022), 80.

19) 도쿄아오야마학원(東京青山学院)은 문헌에서 한자독음에 따라 '동경청산학원'으로 나타나는데,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가 일본으로 파송한 첫 여선교사인 도라 E. 스쿤메이커(Dora E. Schoonmaker, 1851~1934)가 설립한 여학교로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도쿄아오야마학원은 이후 선교사 줄리우스 소퍼(Julius Soper, 1845~1937)와 로버트 새뮤엘 맥클레이(Robert Samuel Maclay, 1824~1907)가 설립한 두 개의 남학교와 합쳐진 것이다.

www.kci.go.kr

베여자학원(神戸女子学院)[20]도 모두 미션스쿨이다. 추애경이 졸업한 대구 신명여고[21]도 1907년에 개교한 영남지역의 최초의 기독교계 여학교였으며, 갓스이여학교는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WFMS)가 설립한 학교로 이화와 자매관계에 있었다. 인천 영화학당은 1892년 이화학당의 음악교사였던 마거릿 벤젤(Margaret Bengel, 1869~1962)이 인천에 정착하여 여자 어린이 교육을 실시한 학교로 이화학당 부속 소학교라고 불렸는데, 김애식과 김영의가 영화학당의 선교사들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입학할 수 있었다.[22]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기독교계 학교라는 것은 서로의 네트워크 속에서 유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대부분의 기독교계 학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근대 시기 음악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이 선교사들로 인해 조선내부에 그치지 않고 외부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기 여성음악가들의 미국에서의 음악 유학은 기독교의 영향 아래 선교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졌으며, 1920년 후반에 일본에 사립음악학교가 하나 둘 설립되기 시작하여 일본 음악 유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고[23] 하더라도 초기 여성음악인들에게 일본 음악 유학은 분명히 기독교의 영향아래 있었다.

2) 유학지 선택과 유학 경험

앞서 살펴 본대로 조선에서 미션스쿨이라는 근대식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었던 여성음악인들의 유학은 본격적으로 1920~30년대에 이루어졌고 이들

20) 고베여자학원(神戸女子学院)은 1873년 엘리자 탤컷(Eliza Talcott, 1836~1911)과 줄리아 더들리(Julia Elizabeth Dudley, 1840~1906)라는 두 명의 여선교사에 의해 고베 홈(神戸ホーム)으로 시작되었으며 1879년 여학교를 거쳐 1894년 고베대학(神戸大学)으로 발전했다.

21) 신명여고는 선교사들이 들여온 악기로 1907년부터 피아노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출발했으며 1913년에는 영남 최초의 합창단인 신명합창단이 생겼다.

22) 김수자, "한국 음악교육의 선구자, 김애식," 『'여권통문', 새 세상을 열다』 (서울: 역사여성미래, 2021), 67.

23)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한국음악사학보』 41 (2008), 15.

www.kci.go.kr

의 유학지는 다른 분야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혹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제국대학 중심의 국가주의적 관학 아카데미즘 아래에 교육이 이행되었던 반면 미국은 개인중심주의와 실용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교육되고 있었는데[24] 이러한 교육방향의 차이가 이곳에서 서로 다른 유학을 경험하게 하고 이후의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일본 유학은 초기 여성음악가들에게 조선에서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서 수준 높은 서양음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갓스이여학교이나 고베여자학원과 같은 미션스쿨이 초기 음악 유학기관이라면 1920년대 후반부터는 도쿄에 여러 음악학교들이 세워지면서 더 많은 음악 유학생들이 생겨난다. 특히 도쿄에는 도쿄음악학교(東京音楽学校), 도쿄도요음악학교(東京東洋音楽学校), 도쿄고등음악학원(東京高等音楽学院), 도쿄제국음악학교(東京帝國音楽学校), 무사시노음악학교(武藏野音楽学校) 등이 있었는데, 이렇게 음악학교가 많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 각지에서 연주활동과 교육을 위해서 일본으로 온 수많은 음악가들이 있었고[25] 특히 독일이나 러시아에서 온 망명음악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1926년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김원복(金元福, 1908~2002)을 도쿄고등음악학원 재학시절 지도했던 독일인 피아니스트 파울 숄츠(Paul Scholz, 1889~1944)와 정훈모를 지도했던 독일인 소프라노 마르가레테 율리아 네트케-뢰베(Margarete Julia Netke-Löwe, 1884~1971)[26]가 그러했다. 숙명여학교에서 김영환(金永煥, 1893~1978)[27]에게 사사받고 고베여자학원에

24) 장규식, "일제하 미국 유학생의 근대지식 수용과 국민국가 구상," 『한국근현대사연구』 34 (2005), 122.

25) 도쿄음악학교의 경우 특히 독일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교원들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다.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 13.

26) 뢰베는 유대인계 독일인 소프라노로 많은 일본인 성악가를 가르쳤다. 1924년 계약 외국인으로 도쿄제국음악학교로 초빙되었고 1931년까지 가르쳤으며 사설 음악기관에서도 가르쳤다. 1927년 4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다. 津上智実, "本邦最初期の《メサイア》演奏を担った女性たち," 『女性学評論』 36 (2022), 117.

www.kci.go.kr

서[28] 피아노를 공부한 이애내는 유럽의 음악인들이 일본에 대거 포진해있었던 만큼 당시에 일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독일로 음악 유학을 갔다. 그녀는 1934년 베를린의 음악학교(Hochschule für Musik)에 입학하여 4년간 수학하고 쿠르트 뵈르너(Kurt Börner, 1902~1943)의 지도를 받았는데, 그녀의 독일 유학은 실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일본 유학의 연장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일본에서 성악을 공부한 윤심덕은 도쿄아오야마학원과 도쿄음악학교에서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는데 그녀는 총독부 관비유학생 신분으로 유학했기 때문에 도쿄음악학교에서 중등교원 양성과정(갑종) 사범과에 속해 있었다.[29] 사범과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 도쿄는 당시로서 가질 수 있었던 음악에 있어 최고의 환경이었다.

초기 여성 음악인들 중에는 일본으로 음악 유학을 떠났지만 학교나 어떤 기관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음악을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 1931년 이화여전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채선엽(蔡善葉, 1911~1987)은 졸업 후 음악과에서 가르치며 연주를 하고 간간히 노래를 불렀는데, 현제명(玄濟明, 1903~1960)의 제안으로 노래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녀는 1934년에 결혼을 했는데[30] 1936년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도쿄로 유학을 떠났고[31] 당시 도쿄에 많은 음

27) 김영환은 숙명여학교 교사였는데, 도쿄도요음악학교(東京東洋音楽学校)를 졸업하고 1913년 도쿄음악학교(東京音楽学校)에서 선과에서 공부했다.

28) 이애내는 이곳에서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후지예프 여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후지예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李愛內孃 피아노 精進記," 『조선일보』, 1939. 11. 29.

29) 전정임, "소프라노 윤심덕 연구," 『음악과 현실』 40 (2010), 95.

30) 본래 미국 유학을 꿈꿨으나 결혼으로 인해 무산되었고 그렇지만 남편의 지지로 일본에 유학할 수 있었다. 채선엽, "나의 交遊錄 元老女流가 엮는 回顧 〈101〉 蔡善葉⑨," 『동아일보』, 1981. 6. 11.

31) 일본 유학 외에도 1965~1966년, 혹은 1955년 전후에 채선엽이 줄리어드 학교에서 수학 혹은 방문교수로 있었다고 문헌에서 발견되어 정규등록, 방문교수, 이벤트 등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학교 측에 확인을 해보았지만 줄리어드 학교는 방문학자나 방문교수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항상 유지하고 있지는 않아 채선엽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www.kci.go.kr

악학교가 있었음에도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일본인 성악가 벨트라멜리 요시코(Beltramelli 吉子, 1903~1973)에게 개인적으로 노래를 배웠다. 이런 사례로 추측해 보면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고 떠난 일본 음악 유학도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유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실기가 뛰어난 유럽출신 연주자들이 많았던 일본으로 조선인이 음악유학을 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했고 유학 후에 지속적으로 무대에 서는 전문연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일본에서 유학한 초기 여성 음악인들이 음악 자체를 더 배우기 위한 목적이 앞섰다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 이화학당은 1920년대 중반부터 전문학교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수한 교원이 필요했고 이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본교의 뛰어난 학생들을 선교사를 통해 미국 유학을 보내어 학업 이후 학교에서 흡수하여 교육과정 개편에 이들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이화의 음악교육발전을 위해 일본 유학 이후 다시 미국으로 간 이은라와 김애식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갓스이여학교 졸업 이후에 이은라와 김애식은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돌아온 후 이화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김애식과 이은라 이후에도 이 화 출신의 많은 여성 음악가들이 유학 후 교육에 힘을 쓰게 될 것을 일찌감치 염두에 두고 음악을 습득함과 동시에 미국의 교육 과정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선택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유학생들은 귀국 후 발전 중인 교육기관의 시스템에 흡수되어 교육과정의 변화에 동참하는 한 명의 일원인 교육자로서의 삶이 기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학 전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교회와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 둘 다에 영향을 끼쳤다. 이 중 선교사들의 영향력은 사료로 발견되는데 초기 미국 유학생들의 유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교사들의 추천서로 잘 드러나며, 추천서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선교사들이 잘 아는 지역이나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지역의 학교가 선택되었고 바로 그 곳이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와 같은 미국 중부 지역에 집중

www.kci.go.kr

되었다.[32]

미국에서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나 오벌린 컨서바토리처럼 19세기 중반 이후 설립된 컨서바토리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음악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었다. 컨서바토리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넓은 층위에서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초기 미국으로 건너간 음악유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유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하지만 수준 편차가 심하고 커리큘럼이 다소 느슨했기 때문에 미국 유학 자체가 여성 음악가들이 유학을 경험한 후 음악교육에 투입될 것이 기대 혹은 전제되어 있는 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이은라와 윤성덕는 상대적으로 이론적 커리큘럼이 잘 갖춰진 기관으로 옮겨간다.

그런데 이은라의 경우에는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피아노, 성악, 솔페지오, 화성 등 다양한 음악과목을 배웠고 보스턴 대학교로 옮긴 이후에는 종교교육과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마친다.[33] 그녀는 "한국에서 개신교에서의 음악의 사용"(The Use of Music in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이라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예술이 한국 교회의 종교교육과 종교사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발전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예술의 역사와 함께 한국사회의 기독교와 그 음악을 아우르는 내용을 다루었다. 임배세는 음악을 공부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1923년 하와이를 거쳐 미국 유학을 떠났지만 음악적 한계와 기독교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심으로 인해 오벌린 컨서바토리(Oberlin Conservatory)에서 일리노이 웨슬리안 대학교

32) 미국의 해외선교운동의 진원지는 뉴잉글랜드였다. 20세기 들어 조선에 왔던 여선교사들의 신상자료 81건을 통해 출신지역을 알 수 있는데, 동부 19.8%, 서부 3.7%, 남부 30.9%, 중서부 37%로 중서부 출신이 가장 많았다. 이후 1906~1919년 사이에 내한한 선교사들 중 중서부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였다.

33) 이은라가 졸업한 보스턴 대학교(Boston University)에는 당시 종교교육과 사회복지(Religious education and Social service) 전공이 존재했는데, 이 과는 1918년부터 1939년까지 존재했던 학과로 이은라는 이곳에서 1925년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예술석사(Master of Arts) 학위를 받았다.

www.kci.go.kr

(Illinois Wesleyan University)로 옮겼고 자신의 전공을 성악에서 종교교육으로 바꾸고 학사과정을 마친다.[34] 이들에게는 '음악' 자체만큼이나 '기독교 신앙'이 중요했는데, 음악을 공부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모두 기독교 신앙위에 세워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 여성들의 음악유학 경험을 일본과 미국이라는 유학지로만 양분해서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에서 유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서의 미래는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여성 음악가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 예로 송경신은 평양에서 미션스쿨에 다니며 선교사들에게 음악을 배웠지만 이화 출신의 음악인들처럼 유학 후에 돌아와 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자로서 투입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은 전제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평양이라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배우면서 신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교육자가 아닌 연주자를 꿈꾸며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했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35] 그녀는 실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 시카고의 아메리칸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American Conservatory of Music in Chicago)으로 옮기는데, 이는 이은라와 윤성덕이 컨서바토리에서 종합대학(University)으로 옮긴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에 해당한다,

송경신은 컨서바토리로 옮긴 후 학업에 대한 중압감을 내려놓고 폴란드 출신 피아니스트 헤니엇 레비(Haniot Lévy, 1879~1945)와 함께 공부하면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장학금도 받는다. 예정대로라면 무대 위에서 기량을 뽐내야 했겠지만 송경신은 귀국 이후 조선에서 독주회를 열지 못했고 비엔나 유학을 계획했지만 정세가 좋지 못해 이 계획마저 무산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음악이나 연주에 대한 의지가 꺾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미국 유학을 경험한 여성 피아니스트로서 유학과정 중 '연주'에 힘을 쏟은 매우 특별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해방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조선인 최초로 미

34) 장정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音·樂·學』 26/2 (2018), 28을 참조.

35) 장정윤, "한국 근대 여성 피아니스트 송경신(宋敬信, 1914-2010)에 대한 연구," 84.

www.kci.go.kr

국 대학의 실기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은 송경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송경신 개인의 특이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행해졌던 음악교육이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조선인을 길러내어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평양과 경성의 음악교육 그리고 분위기의 차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영향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에는 지역별의 차이가 있어 보이기에 이는 추후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겠다. 혹은 가장 많은 여성 음악인을 길러냈던 이화가 1920년대 중반 이후 여성고등교육기관이자 전문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음악 교육과정의 확립과 교원 확충을 중시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이화의 특징적인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도 있다.

3. 유학을 경험한 초기 여성 음악인들과 근대성의 발현

근대성이 역사 속에서 가지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개념 중에서 한 개인에게는 근대성에 내포된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 즉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와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36] 음악은 재능도 필요하지만 연주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마해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요구되고 그 시간을 인내해야 하는 개인의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있고 자식과 남편을 통한 상대적인 위치로서 파악되던 여성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음악

36) '근대성'의 개념은 시대별로 이해되는 방식이 달랐고 학계에서도 각각 달리 정의되어왔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b.1929)에 따르면 근대를 의미하는 라틴어 'modermus'는 기독교가 받아들여진 현재를 과거 이교도의 로마와 구분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시대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몽주의적 관점이 더해지면서 '근대적'이라는 것은 무한한 진보와 다방면의 개선에 대한 개인적 신념으로 나아갔으며 20세기까지 지속되어 온 개념의 주요한 논지 중 하나는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욕구와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경일, "서장,"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서울: 백산서당, 2003), 11-13.

www.kci.go.kr

인으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는 거듭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이 마주하는 경험을 통해 내적인 혼란을 야기하거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모순이 동반된다. 한국의 근대화는 서양문물의 직접적인 유입과 일제를 통한 수용으로 이어지는 혼재되고 복합적인 환경에서 압축적으로 일어났고 이 과정 속에서 유학을 경험한 초기 여성 음악인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음악을 교육받고 유학하게 되는 여러 단계의 경험과 층위가 생겨난다.

1) 음악적 근대와 동경 그리고 현실

앞서 언급한 대로 근대 시기에 기독교 정신은 근대식 교육 속에서 음악을 통해 전달되었고 동시에 음악 그 자체를 가르치면서 많은 서양 음악가들을 키워냈다. 초기 여성 음악가들은 미션스쿨과 교회에서 듣고 부르는 찬송가가 그들이 처음 접할 수 있었던 그들에게 음악은 서양음악이었고 찬송가 부르기를 위한 성악과 이를 반주하는 피아노를 위주로 음악을 배워나갈 수 있었다.[37] 음악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음악 그 자체에 대한 동경보다는 음악교사의 모습에서 그들만의 음악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한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실제 초기 여성 음악가들에게서 피아노와 성악 외에 다른 전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별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노래와 반주를 포함하여 두루두루 섭렵하고 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포괄적인 음악적 재능이 요구되었고 여기에 후세대를 가르치는 음악교사의 모습이 더해졌다. 근대 초기에 여성 음악가는 그야말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음악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유학을 통해 어떠한 경

37) 조선에서 유일하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양음악교육기관이었던 이화여전 음악과는 1925년에 기악부, 성악부, 작곡부로 나뉘어져 있었고 기악부 악기전공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있었다.

www.kci.go.kr

험을 했을까?

임배세는 서양에는 어디든 음악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니 조선에 뿌려진 서양음악의 씨로 인해 조선에 새로운 큰 음악가가 나고 낙원이 되길 바란다며[38]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서양음악의 보급을 바랐고 서양음악을 조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1920년에 한양낙영회(漢陽樂英會)를 조직했던 모습으로 이어진다. 김메리는 "음악은 그 길만 찾으면 일생을 두고라도 단독으로 연습할 수 있으니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놓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려고 한다"[39]며 개인적인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악을 하고자 했으며 미국에서 피아노로 석사학위를 마친다. 윤성덕은 "음악교육에 종사하고자 하며 나 자신의 이름이나 날리겠다는 생각은 없다"[40]고 했는데 자신이 받은 음악교육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이들이 각각 생각하는 음악에 대한 무게는 다르지만 이들의 생각에 비추어 음악을 향유의 대상이면서 삶의 일부이자 배움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긴 당시의 여성 음악인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1900년대 초까지 여성들이 전문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서 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여성들에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문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만 했다. 음악은 여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자 가르침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도구였고 여성이 음악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교육과 사회 환원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에 김애식과 이은라는 초기 여성 음악가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음악교육 체계화에 앞장섰다. 임배세 역시 1925년 하와이의 한인기독학원에 교사로 있을 당시 "떨어진 사회를 구원하는 방법의 하나가 곧 고상한 음악을 주는 것이오, 그렇게 하여 화락하고 유쾌한 기운이 없던 사회에 산 기운을

38) "新進女流氣焰, 音樂과 人生의 關係," 『동아일보』, 1921. 2. 25.
39) "新春樂界 숨은才媛 (6) 將來洋琴家 金袂禮孃," 『동아일보』, 1926. 1. 17.
40) "미국가는 세언니," 『동아일보』, 1926. 7. 16.

www.kci.go.kr

주는 것이 음악가의 책임"[41]이라고 말하며 음악을 계속 공부하겠다고 다짐한다. 1926년 윤성덕은 유학 전 "음악가가 될 어린이들을 위하야"라는 글에서 "음악은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산물"[42]이라고 하면서 모차르트를 소개하며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휘시켜야 하며 이를 각 가정의 어머니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모두 음악을 교육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고 음악교육의 발전과 그 속의 교육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기독교 정신 혹은 선교사들의 추천, 제안, 회유 이들 중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던지 간에 초기 여성 음악가들에게 정확하게는 이화출신 여성 음악가들의 미국 유학에는 음악교육자가 전제되어 있었다. 여성, 교육, 음악이라는 하나로 이어지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에 그 요구에 순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그 뜻을 품고 실천하기까지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초기 여성 음악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로서 음악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것은 유학을 통한 음악에 대한 경험이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유학시기에 결정된 그들의 전문분야는 유학 전에 조선에서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이 전제된 피아노나 성악이 대다수였다.

미국의 경우 조선의 음악교육 발전을 위해 유학을 떠났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차원에서 연주자로서 레퍼토리를 습득하고 연마해야 하는 현실은 여성 음악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극복하기 보다는 견뎌내며 그 과정을 이수해야 하게끔 만들었다. 신문에서 연주자로서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기사와는 다르게 미국 음악유학생 중에 김메리를 제외하고는 귀국독주회를 열었던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

41)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 『동아일보』, 1925. 8. 8.
42) 윤성덕, "音樂家가 될 어린이들을 위하야," 『조선일보』, 1926. 1. 1.

www.kci.go.kr

[표 2] 1920~30년대에 유학을 경험한 주요 여성음악인들의 전공변화

이름	유학 전	유학 시 전공
김애식	피아노	피아노
이은라	음악	종교교육&사회복지
윤심덕	성악	음악교육
임배세	성악	종교교육
추애경	성악→피아노	성악
윤성덕	성악, 피아노	성악
김메리	영어과	피아노
고봉경	피아노	피아노
김원복	피아노	피아노
김영의	문과→피아노	피아노
이애내	피아노	피아노
정훈모	성악	성악
채선엽	피아노	성악
송경신	피아노	피아노

반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초기 여성 음악가들은 모두 학업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와 많은 무대에 서며 자신의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김원복, 정훈모, 채선엽은 유학 후 훨씬 더 많은 무대에 섰다. 김원복은 남편인 바이올리니스트 홍성유(洪盛裕, 1908~1936)와 실내악 무대에 함께 올랐고, 도쿄제국음악학교를 졸업한 후 조교수로 임명받았던[43] 정훈모는 남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형량(金亨亮, 1908~1947)과 함께 연주하거나 평양과 경성 등지에서 독창회를 하는[44]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음악가를 남편을

43) "鄭勳謨女史 獨唱會를 앞두고 女史의 畧歷과 藝術 (2)," 『동아일보』, 1934. 5. 2.

44) "鄭勳模女史 平壤獨唱會," 『동아일보』, 1933. 3. 9. "女流聲樂界의 第一人者 鄭勳謨女史獨唱會," 『동아일보』, 1934. 4. 17. "第二回 女流聲樂界의 明星 鄭勳謨女史獨唱會," 『동아일보』, 1935. 4. 19. 등 정훈모는 다수의 독창회를 열었다.

www.kci.go.kr

만나 같은 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채선엽 벨트라멜리 요코에게 사사받은 후 1938년에 도쿄와 오사카에서 독창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부민관에서도 독창회를[45] 열었는데, 채선엽의 유학은 결혼 후 일이었고 남편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일본에서 유학 한 여성 음악가들도 우수한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연주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긴 했지만 결국 그들의 음악활동에 대한 무게는 '연주'에 실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음악 유학생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김애식과 이은라는 일본 유학 후 미국 유학을 떠나 돌아와서 교육에 힘을 쏟았던 반면, 1923년 유학을 떠났던 임배세는 1928년 사업가이자 미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경(金慶, 1888~1966)과 결혼 한 이후 미국에 정착하게 된다.[46] 임배세의 경우 유학 전 노래로 많은 무대에 섰고 하와이를 거쳐 미국 오벌린 음악대학에서 음악유학을 시작했지만 졸업하지 않고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종교교육으로 학사과정을 마친다.[47] 미국 유학 초 인터뷰에서 자신이 음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뚜렷하게 인식하고 이것이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48] 임배세가 유학 중에 전공을 바꾼 것이다. 그녀가 전공을 바꾼 이유는 개인적인 신앙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겠지만 초창기 근대 교육과정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음악이 그녀에게 매우 한정적이었다는 것 역시 하나의 이유였다.[49]

---

45) "蔡善葉女史獨唱會를 東京과 大阪서 開催," 『동아일보』, 1938. 2. 3. "蔡善葉女史獨唱會," 『조선일보』, 1938. 5. 5.

46) 임배세는 결혼 이후 시카고와 뉴욕 등지에서 김경과 함께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는데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3·1운동 101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았다. 이후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이화박물관에서 '이화의 독립운동가들' 특별전에 33인 중 한명으로 전시되었다.

47) 장정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13.

48)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 『동아일보』, 1925. 8. 8.

49) 장정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28.

www.kci.go.kr

이에 비해 김메리는 영어를 공부하고 음악으로 전공을 바꾸는데 있어 자발적인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1926년 당시 영문과에 속해있었기에 음악을 충분히 배울 여유가 없었다고 했던 김메리는 이화에 재학하던 개인적으로 음악을 배우면서 준비하였고 바버장학금(Barbour Scholarship)을 받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다. 김메리는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주도해나가며 성공하고자 했는데, 유학 전부터 음악이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고 가정을 이룬다 하더라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50] 김메리는 음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지도교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유학생활을 했으며 귀국 후 이화여전의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도 미국에 음악 자료나 피아노를 요청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51] 김메리가 1935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려 했을 때 김활란(金活蘭, 1899~1970)을 대신하여 범태평양여자대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각국의 여성들이 경제, 사회,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배우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한국을 알릴 필요성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에 『한국의 민요』(Folk Songs of Korea, 1950)라는 12곡의 한국 민요를 담고 있는 악보집을 편곡하여 출판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김메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유학생들은 서구의 여성들의 생각을 듣고 비교하는 모임을 통해 보다 여성중심의 시각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이들의 경험은 이후 가정 내에서만 머무르는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했다고 볼 수 있으며 1950년 이후 '음악'에만 그치지 않는 김메리의 활동이 이를 말해준다.

윤성덕은 한국으로 돌아와 김애식, 메리 영과 함께 이화여전에서 커리큘럼

50) 장정윤, "근대 여성음악가 김메리에 대한 기초연구-1950년대까지의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300-301.

51) 장정윤, "근대 여성음악가 김메리에 대한 기초연구-1950년대까지의 음악활동을 중심으로," 312.

www.kci.go.kr

을 보완하고 개발하며 유학 전 선교사들이 이끌었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음악 유학을 해나감에 있어 귀국 후 교육영역에 투입될 것을 감안해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다양한 음악교과목들을 이수했다. 교육자로서의 분명한 미래가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유학 후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유학 기간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 없이 배워야 할 것들을 충실히 그리고 빠르게 습득해야 했던 것이다. 윤성덕은 성악 실기전공생이었지만, 실기(applied music)외에도 이론과 작곡(theory and composition), 교회음악과 합창음악(church and choral music)이라는 4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진 노스웨스턴대학교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을 배우고 기초과목으로 화성(harmony), 음악의 이해(music appreciation), 시창(sight singing), 일반교육학과 음악교육학을 수강했다.

윤성덕의 유학과 귀국 후 행보는 1929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1937년 9월 미국에 재방문하기 전까지 음악교육의 발전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다. 재방문 이유도 선진화된 교육에 대한 정보와 방식이 필요했던 이유였고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욕 등지의 음악학교를 시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리고 교수로서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프린스턴에 위치한 학교에서 성악, 피아노, 지휘를 공부하기도 했다.[52] 윤성덕 뿐만 아니라 김영의는 이화여전을 졸업 후 7년 간 교수로 있다가 1935년에 줄리어드 학교(Juilliard School)로 유학을 떠났고 약 4년간 피아노와 음악이론(music theory)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1947년 재차 방문하여 1년간 줄리어드 학교에서 공부했으며[53] 이후 퍼시픽 대학교(University of the Pacific)에서 1960년에 피아노와 이론 전공으로 석사를 마친다. 윤성덕과 김영의의 미국 재방문은 이화의 커리큘럼을 발전

52) 장정윤, "사료(史料)로 살펴본 윤성덕(尹聖德)의 삶과 음악활동," 『音・樂・學』 29/1 (2021), 24.

53) 김영의는 1935년부터 1939년 유학기간 동안 피아니스트인 애나벨 맥켈러(Annabel F. McKeller)와 헨리에타 미켈슨(Henrietta Michelson)을 사사했고 이후 재방문 시기(1947~48)에는 도로시 와그너(Dorothy Wagner)와 공부했다.

www.kci.go.kr

시키기 위함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음악교육을 위한 자신들의 역할에 부족함을 느끼고 이를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였다고 볼 수 있다.

대구 출신 소프라노 추애경은 이화학당에서 성악을, 일본 갓스이여학교에서는 피아노를 배웠다. 그리고 미국으로 간 후에는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다시 성악을 공부했다. 이러한 모습은 음악가로서 전공을 넘나드는 변화라기보다는 자신이 접했던 음악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어떠한 음악을 전공분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윤성덕도 이화학당과 전도대에서 활동하면서 유학 전에 노래를 부르고 합창을 하기도 했으며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하고 언니인 윤심덕의 노래에 반주를 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대학교에서는 성악을 전공을 했고 성악 전공자에게 필수 과정이었던 다른 이들의 노래에 반주를 수강했다. 미션스쿨에서 음악을 배운 초기 여성 음악가들은 유학하는 과정에서 찬송가 외에 많은 음악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접하면서 자신의 한정적인 경험의 틀이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만의 '음악'을 해나가는 방식을 선택했고 자신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공간에서 해나갔다.

2) 유학 이후 변화와 극복 그리고 한계

유학기간 동안 '전공'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생겼지만 유학을 마치고 조선에 돌아온 이후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유학지에서 최대한 음악교육과 관련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하는 의무가 전제되어 있었다. 특히 서구의 음악을 배우고 최고의 연주기량을 뽐낼 수 있었던 미국 유학을 경험한 음악가들에 대한 기대는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54]

이보다도 일본에서 유학을 경험한 여성 음악인들은 무대에 많이 섰는데,

54) 윤성덕, 김메리, 송경신에 대한 조선 음악계가 드러낸 기사는 필자의 논문이나 다음을 참조. 홍종인, "半島 樂壇人 漫評," 『東光』 22 (1931), 39., "藝苑人언파레드 音樂界(11)," 『동아일보』, 1937. 9. 2., "新進 피아니스트 宋敬信孃 歸省," 『매일신보』, 1937. 11. 19.

www.kci.go.kr

특히 피아노를 전공했던 채선엽은 성악으로 일본 유학을 경험했다. 귀국 후 1938년에 열린 독창회에 대해서 이인선(李寅善, 1907~1960)은 채선엽의 발성이 "정통 벨칸토를 계승"[55]했다고 표현했으며 소프라노 리리코로서 성당한 성량과 부드러운 음질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채선엽이 사사한 벨트라멜리 요시코는 이탈리아의 테너이자 일본에 벨칸토 창법을 알리기 시작한 아돌포 사르콜리(Adolfo Sarcoli, 1867~1936)를 사사했기 때문에 채선엽이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채선엽은 뛰어난 기량으로 1938년에 경성뿐만 아니라 도쿄와 오사카에서 독창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무대에 섰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김원복은 남편 홍성유(洪盛裕, 1908~1936)와 함께 도쿄고등음악학원에서 공부했는데, 홍난파(洪蘭坡, 1898~1941)와 음악가족의 영향 아래 무대에 많이 섰던 음악가 중 한 명으로 경성중앙보육학교와 경성음악학교에서 교육자로서 활동했으며, 결혼과 사별을 겪으며 독주보다는 다수의 반주와 실내악 무대에 올랐다.

이에 비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여성 음악가들 중에서 음악계의 기대감에 부응한 음악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윤성덕은 귀국 후 독주회를 열지 않았으며, 김메리는 1935년 2월 귀국 독주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의 단독 무대였고 송경신은 귀국 후 독주회를 열지 못했다. 김영의는 유학 이전인 1935년에 송별독주회를 열었으며[56] 유학 후에 독주회를 열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유학을 경험한 여성들의 무대가 일본에서 유학을 한 여성음악가들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초기 여성 음악유학생들은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최고의 엘리트 연주자들이었는데, 당시로서 소위 실기가 우수했던 연주자조차 행정적인 음악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음악을 가르쳐야만 했다. 특히 미국 음악 유학생들은 유학하면서 배워온 커리큘럼을 환원시켜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들고 이끌어가야 하는 음악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더 절실한

55) "蔡善葉女史의 獨唱을 듣고 (下)," 『동아일보』, 1938. 5. 10.
56) "김영의양 송별독주회," 『동아일보』, 1935. 6. 20.

www.kci.go.kr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주자로서 무대에 집중된 음악활동으로 해나가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유학이 초기 여성음악가들의 삶에 큰 변화였듯이 결혼도 이들에게는 가정 내의 위치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가부장 사회였던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성 음악가에게 결혼은 사회와 단절되거나 경력에 하나의 제약이 되거나 큰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표 3] 초기 여성음악가들의 결혼과 유학 후 행보 그리고 배우자 직업

이름	최종유학지	유학 후 행보[57]	배우자	배우자 직업
김애식	미국	국내(교육자)	정일사(鄭一史, 1881~1948)	의사, 교육자
임배세	미국	유학 후 미국 정착	김경(金慶, 1888~1966)	사업가, 독립운동가
추애경	미국	유학 후 미국 정착	김태술(金泰述, 1899~1979)	성악가
윤성덕	미국	1937년 미국 방문 이후 정착(그 이전까지 교육자, 연주자)	차진주(車鎭周, 1905~2000)	독립운동가
김메리	미국	1947년 미국행 (그 이전까지 교육자, 연주자)	조오흥(曹五興, 1894~1975)	상업, 사업가
김원복	일본	국내(연주자, 교육자)	홍성유(洪盛裕, 1908~1936)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의	미국	국내(교육자, 연주자)	신성모(申性模, 1891~1960)	독립운동가, 정치인
이애내	독일	국내(연주자, 교육자)	안병소(安柄玿, 1910~1979)[58]	바이올리니스트
정훈모	일본	국내(연주자, 교육자)	김형량(金亨亮, 1908~1947)	바이올리니스트
채선엽	일본	국내(연주자, 교육자)	최규남(崔奎南, 1898~1992)	교육자
송경신	미국	1947년 미국행 (1952년 이전까지 연주자, 교육자)	윤두선(尹斗善, 1913~2005)	성악가

57) 교육자와 연주자의 순서를 다르게 쓴 이유는 필자의 견해에 따른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이다.

58) 문헌에서 안병소는 1910년 혹은 1911년 출생으로 발견되며 한자이름도 安柄玿 혹은 安柄昭로 나타난다.

www.kci.go.kr

[표 3]에서 보면, 임배세, 윤성덕, 추애경처럼 음악활동을 이어가다가 결혼 이후 활동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임배세와 추애경은 유학 도중 결혼하여 미국에 정착하게 되고 윤성덕은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1937년 미국 방문 이후 그 곳에서 결혼하고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모두 결혼으로 인해 남편의 활동에 협력하는 위치 혹은 지지하는 내조자의 역할로 바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김원복, 정훈모의 경우에는 활동의 제약보다는 음악가의 배우자를 만나 오히려 지지를 받거나 입지를 굳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혼으로 인해 음악계에서의 영향력이나 언급 혹은 인식은 달라지더라도 남편이 모두 음악가였기 때문에 자신의 음악 활동에 대해서 이들로부터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더불어 김애식이나 채선엽은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배우자의 이해가 동반되었다.

이 밖에도 음악 유학을 했지만 결혼과 관계없이 삶을 살았던 음악가는 윤심덕과 고봉경이 있다. 윤심덕은 최고의 소프라노로 불렸고 영화에 출연하고 음반을 취입했을 만큼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고봉경은 여성, 부인계에 공헌하고 싶다는 포부로 1933년에 미국 웨슬리안 대학(Wesleyan College)을 졸업하고 귀국한 후 동생 고황경과 함께 서울시 외곽 농촌마을 여성들을 위한 경성자매원(京城姊妹園)을 1937년 7월에 설립하고 운영했다.[59] 고봉경에게는 연주자와 교육자라는 위치보다 사회의 약자계층을 돌보는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의식적인 활동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송경신의 언니 송복신(宋福信, 1902~1994)은 동생과 함께 미시간 대학교에 입학하여 하프를 배우게 되는데, 그녀는 본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으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박사학위를 마친 후에 동생과 함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프로 공부하게 되었다.[60]

---

59) 김성은, "1920~30년대 미국 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12), 82., "京城姊妹園의 事業," 『동아일보』, 1937. 10. 29.

60) 송복신(宋福信, 1902~1994)은 일본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와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유학

www.kci.go.kr

4. 나가며

본 논문에서 살펴본 초기에 음악 유학을 경험한 여성음악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간다. 미션스쿨에서 교육받은 초기 여성음악인들은 미국과 일본으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교육 방향 속에 각각 다른 근대를 경험했고 유학 이후에 이들의 음악활동은 다르게 펼쳐진다. 미국 유학은 본래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배우는 것이 전제된 유학이었던 만큼 귀국 후에는 무대보다는 보다는 기관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었고 이에 비해 일본 유학은 유럽 출신의 음악인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실기 위주의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선택되어졌다. 하지만 미국 음악유학생들을 통해 받아들여진 교육과정이 확립되고 점차 안정기에 접어든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준 높은 실기교육을 위해 유학지에 상관없이 유학 경험이 있는 정훈모, 김원복, 채선엽, 송경신과 같은 전문적인 연주자들이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며 사범학교와 음악학교에 흡수되었다.

초기 여성 음악유학생들에게는 선교사들의 추천으로 설계된 유학도 있었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유학 중에 전공을 바꾸기도 했으며 꾸준한 연마를 통해 음악적 기량을 뽐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이 보인다. 모두 다른 과정 속에서 근대를 경험하고 근대를 체화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들의 공통점은 근대적 교육을 받고 유학을 통해 시야를 넓혔으며 음악을 통해 타자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꾸준히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이다. 유학을 통한 경험과 내적인 갈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 성찰은 이후 그들이 음악적 삶 속에서 자신이 무엇에 무게를 둘지에 대

한 위생학박사이다. 송복신은 송경신의 유학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송경신이 미시간대학교에 유학할 당시 음악대학에서 하프를 공부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윤순영(Soon-young Yoon) 박사는 송복신이 본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으나 아버지 송상점의 영향으로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박사학위를 다 마친 후에 동생 송경신과 함께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프로 공부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장정윤, "한국 근대 여성 피아니스트 송경신(宋敬信, 1914-2010)에 대한 연구," 75-77.

www.kci.go.kr

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게 만들었다.

초기 여성 음악가들의 모습은 교육자, 연주자, 혹은 음악활동이 축소되는 삶에서 조차 음악과 함께 하며, 자신이 위치한 공간에서 다양한 삶을 펼쳐 나간다. 과연, 홀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주자만이 음악적인 자아실현을 한 것이며 근대성이 발현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유학을 경험한 초기 여성 음악가들의 경험과 갈등은 다양하다.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던 그들의 역할이 있었고 한계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들의 모습을 극복하지 못한 사회문화적, 시대적 한계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한정적인 음악교육을 받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각각의 삶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와 현실에서의 성찰을 통해 스스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자율성'을 획득한, 그들이 유학과 교육을 통해 체험한 '근대'에 대한 개개인의 '근대성'이 발현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초기 여성 음악가들 외에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근현대음악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표삼아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의 기반을 만들 있을 것이다. 이는 사료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 음악가들의 이름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기초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음악적 근대화에 있어 유학을 경험한 여성 음악인들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최초의 여성음악가들을 근대화 '주체'로서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유학 전 조선에서 가졌던 한정적인 음악경험과 유학기간 동안의 음악적 근대와 이에 대한 동경,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갈등, 유학 이후 사회적 역할, 편견적 시선, 극복, 한계 등은 근대 시기에 우리가 '음악'을 구심점으로 가질 수 있었던 다양한 환경을 더불어 앞으로 보다 다각도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박종문. “신명고, 개교 120주년 발자취(하) 아름다운 작품을 빚는 동산.”『영남일보』. 2022. 10. 24.

윤성덕. “音樂家가 될 어린이들을 위하야.”『조선일보』. 1926. 1. 1.

채선엽. “나의交遊錄 元老女流가 역는 回顧〈101〉蔡善葉①.”『동아일보』. 1981. 6. 1.

_____. “나의 交遊錄 元老女流가 엮는 回顧〈101〉蔡善葉⑨.”『동아일보』, 1981. 6. 11.

홍종인. “半島 樂壇人 漫評.”『東光』. 22, 1931.

“京城姉妹園의 事業.”『동아일보』. 1937. 10. 29.

“교비생으로 뽑혀 미국 가는 두 재원 高鳳京孃과 高凰京孃.”『동아일보』. 1931. 4. 16.

“김영의양 송별독주회.”『동아일보』. 1935. 6. 20.

“女流聲樂界의 第一人者 鄭勳謨女史獨唱會.”『동아일보』. 1934. 4. 17.

“녀성사업가의 이모저모 몸을 바치는 아름다운 일꾼.”『동아일보』. 1940. 1. 6.

“미국가는 세언니.”『동아일보』. 1926. 7. 16.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동아일보』. 1925. 08. 08.

“성악의 정녀사와 제금의 김씨 악단에 경이의 데뷔.”『동아일보』. 1932. 11. 29.

“申性模氏 駐日代表를 任命.”『동아일보』. 1951. 7. 14.

“新進女流氣焰, 音樂과 人生의 關係.”『동아일보』. 1921. 2. 25.

“新春樂界 숨은才媛 (6) 將來洋琴家 金袂禮孃.”『동아일보』. 1926. 1. 17.

“新進 피아니스트 宋敬信孃 歸省.”『매일신보』. 1937. 11. 19.

“洋琴家李愛內孃談 變遷한 獨逸世態.”『동아일보』. 1938. 11. 23.

“藝苑人언파레드 音樂界(11).”『동아일보』. 1937. 9. 2.

“李愛內孃 피아노 精進記.”『조선일보』. 1939. 11. 29.

“鄭勳謨女史 獨唱會를 앞두고 女史의 畧歷과 藝術 (2).”『동아일보』. 1934. 5. 2.

www.kci.go.kr

“鄭勳模女史 平壤獨唱會.”『동아일보』. 1933. 3. 9.

“第二回 女流聲樂界의 明星 鄭勳謨女史獨唱會.”『동아일보』. 1935. 4. 19.

“蔡善葉女史의 獨唱을 듣고 (下).”『동아일보』. 1938. 5. 10.

“蔡善葉女史獨唱會.”『조선일보』. 1938. 5. 5.

“蔡善葉女史獨唱會를 東京과 大阪서 開催.”『동아일보』. 1938. 2. 3.

“첫길에 압장 선 이들 (13) 조선음악계에 한줄기 빗이 되는 리화학당 교사 김 앨리스양.”『조선일보』. 1924. 12. 5.

“韓國의 母像.”『조선일보』. 1965. 5. 23.

Wesleyan College, *Wesleyan College Alumnae Magazine*, August, 1952.

津上智実. ”本邦最初期の《メサイア》演奏を担った女性たち.”『女性学評論』 36 (2022), 111-127.

강선미.『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 서울: 푸른사상, 2005.

김경일.『한국의 근대와 근대성』. 서울: 백산서당, 2003.

김성은. “1920~30년대 미국 유학 여성지식인의 현실인식과 사회활동.”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2012.

김수자. “김애식의 음악 교육인으로서의 성장과 ‘기독교 가정’ 형성.”『이화사학연구』 63 (2021), 227-255.

_____. “한국 음악교육의 선구자, 김애식.”『‘여권통문’, 새 세상을 열다』. 서울: 역사여성미래, 2021, 66-80.

김지선. “근대시기 일본의 음악학교에 유학한 조선인.”『한국음악사학보』 41 (2008), 149-186.

박정숙. “근대의 타자 혹은 근대의 주체: ‘소문’과 ‘상상’으로 구성된 여가수 윤심덕(1897-1926).”『音・樂・學』 27/2 (2019), 125-169.

손태룡. “추애경, 김태술, 권영화, 그들은 누구인가?.”『한국 서양음악가 연구』. 서울: 보고사, 2011, 284-320.

신남주. “1920년대 지식인 여성의 등장과 해외유학.”『여성과 역사』 3 (2005), 1-75.

www.kci.go.kr

이경분. “베를린의 한국음악유학생 연구: 안병소와 이애내를 중심으로.”『음악논단』39 (2018), 41-77.

_____. “베를린의 일본 음악유학생 연구: 1920~1930년대를 중심으로.”『일본비평』8/2, 216-247.

이화100년사 편찬위원회 편.『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전정임. “소프라노 윤심덕 연구.”『음악과 현실』40 (2010), 91-120.

장규식. “일제하 미국 유학생의 근대지식 수용과 국민국가 구상.”『한국근현대사연구』34 (2005), 121-156.

장정윤.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音 · 樂 · 學』26/2 (2018), 7-67.

_____. “근대 여성음악가 김메리에 대한 기초연구–1950년대까지의 음악활동을 중심으로.”『한국예술연구』32 (2021), 295-318.

_____. “사료(史料)로 살펴본 윤성덕(尹聖德)의 삶과 음악활동.”『音 · 樂 · 學』29/1 (2021), 7-41.

_____. “한국 근대 여성 피아니스트 송경신(宋敬信, 1914-2010)에 대한 연구.”『이화음악논집』26/3 (2022), 69-100.

_____. “피아니스트 김원복(金元福)의 1950년 이전까지의 음악활동: ‘음악가족’을 중심으로.”『이화음악논집』27/1 (2023), 161-202.

정병준.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이화사학연구』39 (2009), 29-99.

정혜중.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선교부와 이화학당 대학과.”『여성학논집』36/2 (2019), 3-29.

조윤영. “식민지조선 여성 음악가에 대한 인식적 고착화: 결혼제도에 따른 여성과 음악의 한계.”『이화음악논집』26/4 (2022), 163-206.

채선엽. “음악과 함께 한 내 삶의 불씨.”『불씨』(대한주부클럽연합회 편). 서울: 바른사, 1986, 31-36.

허지연.『제국 속의 제국: 미국의 해외선교와 한국의 음악교육』. 서울: 민속원, 2019.

www.kci.go.kr

Abstract

Study abroad Experiences of Early Korean Female Musicians and Their Manifestation of Modernity: Focusing on 1920s~30s in Modern Korea

Chang, Jeong Youn

This paper aims to shed light on the early Korean female musicians who studied abroad, focusing on the 1920s and 1930s when studying abroad increased, and to examine how their experiences of studying abroad, which involved conflicts between personal aspirations and societal demands, manifested in modernity.

Studying music abroad played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music culture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in Korea. Music had been used as the most useful educational tool to encourage women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movement to liberate Korea from Japanese rule. For women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therefore, music was not just an object of enjoyment but also a mission and duty to learn, master, and pass their knowledge to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o enlighten society.

Overseas education provided opportunities for these early female musicians to open their eyes to the modern world in complex and diverse ways, where societal demands for giving back and personal aspirations for self-realization were intertwined. All of them experienced and embodied modernity through different processes, and their experience of studying abroad and continuous reflection amid internal conflicts guided them to determine their own life paths. It can be said that the early women musicians, who acquired 'autonomy' through their pursuit of self-realization and reflection on reality through study abroad and

www.kci.go.kr

education, expressed ‘modernity’ in their own lives as a response to the ‘modernity’ they experienced.

Key Words: Modernity, Women Musicians, Music Studying Abroad, Music Education, Music in Modern Period

투고일	심사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15일	2023년 14월 17일 ~ 5월 30일	2023년 6월 1일

DOI 10.34303/mscol.2023.31.1.002

www.kci.go.kr